

“현 교과서 5·18 발생 이유 설명하기도 부족”

5·18기록관 ‘교과서 속 5·18’ 포럼서 현직 교사들 주장 초등 교과서부터 콘텐츠·가치·의의 등 엄정한 서술 요구

“5·18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에 학생들의 교과과정·단계에 맞는 콘텐츠를 충분히 수록하고, 민주화운동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초·중·고 역사교과서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현직 역사교사들은 정권 성향에 따라 교과서 속 5·18 비중과 설명이 오락가락 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호소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지난 7일 열린 ‘교과서 속 5·18을 말하다’ 포럼에서 현직 교사들은 2020년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의 가치와 의의가 축소·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한 서술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경훈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5·18 서술과 변화과정’ 발표에서 “초등 교과서에도 5·18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2009 개정 교육과정처럼 단계 문장만으로는 5·18에 대해 가르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사에 따르면 초등 교과서에서 5·18이 처음 서술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때인 제7차 교육과정(2000년 적용)이며,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2009년 적용)까지는 5·18에 대한 교과서 분량이 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의 5·18기념식 불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배제 등의 영향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2011년 적용)에서는 분량이 대폭 축소

됐다. 내용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전국적 시위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09 과정에서는 서울 시위와 광주 시위를 따로 설명하며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축소시켰다.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5·18 서술과 변화 과정’을 주제로 발표한 광주문화중 김보름 사회 교사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니 5월 21일과 27일 사이 봉쇄된 광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며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 역사교과서는 고교 교과서를 축약해 놓은 것에 불과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2020년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대동정신, 1980년 이후 진상규명 과정, 희생자 문제,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 등을 담고 있는 교

과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저학년에서는 인물 중심, 다음 교육단계에서는 5·18 왜곡과 진실, 앞으로의 과제 등을 차례로 배우게 하는 식으로 교육과정마다 적합한 내용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난무하고 있는 왜곡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이 북한군 투입설, 5·18유공자 귀족 예우설 등의 허위 사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5·18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완도고등학교 역사교사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5·18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처벌받았다”며 “시대가 변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교사들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광장 성탄트리 점등 9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2018빛고를 성탄문화축제 성탄트리’가 점등됐다. 이 성탄트리는 내년 1월말까지 광주도심을 밝힌다. /최해배 기자choi@

전남 중학생 교복·고교생 교과서 무상 시대

내년 3월 입학생 전원 지급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고교 신입생 무상 교과서 시대를 연다.

내년 3월 입학하는 도내 중학생 전원에게 교복비가 지급되고, 고교 신입생에게는 교과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교복·교과서 무상 지급은 전남이 전국 최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에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 45억원과 고교 신입생 무상교과서 지원 예산 17억원이 반영됐다. 시(市) 지역 고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2053억원도 포함됐다.

함됐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과 함께 학교 소재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 교복·교과서 지급이라는 교육복지 확대로 접어들었다. 교육복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기재부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교복·교과서 지원 결정은 오로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소주 한잔도 NO! ...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57년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

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교법 개정안은 전부터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20대 청년의 애석한 죽음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서야 입법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면서 “현재 연구용역을 거쳐지는 중이며,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0 달뜨기 09:42
해질 17:20 달짐 19:54

아침까지 추워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4/7	보성	구름많음	-5/7
목포	구름많음	-4/6	순천	구름많음	-3/8
여수	구름많음	-2/7	영광	구름많음	-8/5
나주	구름많음	-6/7	진도	구름많음	-3/6
완도	구름많음	-3/8	전주	맑음	-6/6
구례	맑음	-8/7	군산	맑음	-5/5
강진	구름많음	-5/8	남원	맑음	-7/7
해남	구름많음	-5/7	흑산도	구름많음	2/6
장성	구름많음	-6/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북동	0.5~1.5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51	03:31
21:33	16:19	
여수	04:14	10:56
	17:01	22:48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	☀	☀	☀	☁	☁	☁
0/5	0/6	-1/6	-3/6	-2/7	1/8	0/8

추위 한풀 꺾여...내일 오전 광주·전남 비·눈

주말과 휴일 맹위를 떨쳤던 한파가 한 풀 꺾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광주·전남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이라고 9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다만 당분간 평년 기온(아침 최저기온 영하 3~2도, 낮 최고기온 7~10도)보다는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구례 영하 9도, 곡성 영하 8도, 보

성·영광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등 영하 9~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영광 5도, 무안·진도 6도, 광주·목포·여수 등 7도, 순천·광양·담양 등은 8도로 한 낮에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다. 11일에는 새벽부터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광주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오후부터 점차 겹겹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 내륙지방 일부에는 눈이 오는 지역도 있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지역 농산물 절도 전년 대비 감소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농산물 수확기 전·후 방범활동 강화계획’을 추진한 결과, 농산물 절도 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청은 농산물 재배장소, 보관장고, 품종별 수확시기 등을 분석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144개소를 선정한 후 탄력 순찰, 자율방범대 합동감시, CC(폐쇄회로)·TV 증설 등을 추진했다. 또 범죄예

방진단팀(CPO)이 농산물 보관장고 등 대해 범죄예방단을 통해 적외선 경보기·차량문경보기 등 27대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도 병행했다.

전남청은 특히 올해엔 작황부진으로 고추값이 급등함에 따라 고추재배 농가와 재래시장 고추판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 농산물 절도사건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겨울이행

남원으로 가자G!!

남원에촌 동·동·동 화축제 (12.22 ~ 12.25)

바래봉 눈꽃축제 (12.29 ~ 2.10)